"산림치유자원 관광산업화 순창을 청정휴양도시로"

'도지사 출마' 김윤덕 의원
루지테마파크 조성 지원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귀래정 순원 복원 등
4가지 지역 공약 제시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윤덕(전주 갑) 국회의원이 순창군을 "청정 산림 치유자원 관광산업화를 통해 청정휴양도시로 자리매김 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윤덕 의원은 5일 순창군 공약 발표를 통해 "맛과 멋의 고장 순창의 관광 산업 활성화, 순창군 종합문화 예술회관 건립 등을 통해 순창의 미래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주요 공약으로 ▲천혜의 산림자원과 섬진강을 바탕으로 청정 휴양도시 순창 만들기 지원, ▲루지테마파크 조성 지원, ▲순창군 종합 문화예술회관 건립, ▲귀래정 순원 복원사업 추진 등 4가지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특히, "맛과 멋의 고장인 순창을 풍부한 산림 자원, 굽이굽이 흐르는 섬진강을 바탕으로 청정 휴양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순창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아직도 관광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다"며 "순창군이 추진하는 '루지테마파크장' 조성 지원을 통해 문화 관광 인프라 확충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또, "기존에 노후화된 공연장은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순창군 종합 문화 예술회관'을 건립해 순창군만이 가진 문화 예술 공연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선 후기의 실학자 여암 신경준 선생의 순원을 복원하는 '귀래정 순원 복원 사업'을 통해 역사문화 공원의 랜드마크 조성을 통해 관광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윤덕 의원은 "순창군은 대한민국이 인정한 맛과 멋, 치유, 청정도시라는 강점을 활용해 미래 발전을 이끌겠다"며 "순창군 발전을 위한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고 강조했다.

/유호상기자 · 순창=이양원 기자

"수출농업 · 관광 · 수소로 부안경제 부흥"

'도지사 출마' 안호영 의원
해창 석산부지에 수소산단 조성
아리울 자연드림파크 구축 등
지역발전 5대 공약 발표

전북도지사 출마예정자인 안호영 의원은 4일 부안군청에서 지역발전 5대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전북도지사 출마예정자인 안호영 국회의원(완주 · 진안 · 무주 · 장수)이 5일 "부안군을 첨단농업과 관광중심도시, 수소산업도시로 완전히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부안군청에서 부안발전 5대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 고령화와 농촌 소멸 위기 앞에서 언제까지 한숨만 쉬고 있을 수는 없다"며 "비전과 추진력, 정치력으로 부안군과 전북도의 위기를 돌파하는 구원투수가 되겠다"고 밝혔다.

해양관광레저 및 수소산업, 첨단농업을 통해 부안군의 미래 100년 먹거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안호영 의원은 ▲해창 석산부지에 수소산업단지 조성, ▲외국인 근로자 농어촌 이민비자 도입으로 인력난 해결, ▲부안아리울 자연드림파크 구축, ▲서해안권 노을해양공원 및 청호저수지 수변 생태로드 조성 등 5개 공약을 제시했다.

안호영 의원은 "이제 전북도정은 새로운 리더십과 새로운 대안, 새로운 정치력을 필요로 한다"면서 "전북에서 민주당을 지켜온 유일무이한 20대, 21대 재선 국회의원으로 전북 몫을 당당히 찾아온 안호영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전라고, 연세대 법대 출신인 안호영 국회의원은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민주당 중앙당 새만금그린뉴딜위원회 위원장 및 정책위원회 선임부의장을 맡고 있다.

/유호상기자 · 부안=김석진기자

"더 좋은 후보, 기분 좋은 선택"

민주 도당, 지방선거 혁신 3대 권고안
공직선거후보추천관리위에 전달키로

청년 · 여성 우선 공천, 신인 발굴 공모
더 좋은 후보 추천 위한 검증 · 평가 강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지방선거기획단(단장 이재규, 이하 기획단)은 '지방선거 혁신을 위한 3대 권고안'을 작성해 6일 개최 예정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윤준병)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기획단이 발표한 3대 권고안은 청년 · 여성 우선 공천(광역 20%, 기초30%), 청년 · 여성 후보 발굴을 위한 추가 공모 진행, 더 좋은 후보 추천을 위한 검증과 평가 강화이다.

기획단은 청년과 여성의 정치참여는 정치혁신과 변화의 주요 지표라고 강조하며, 청년과 여성의 공천 비율을 명시한 더불어민주당의 당규 준수와 지난 1월 민주당이 발표한 쇄신 방안 이행을 첫번째 권고안 청년 · 여성 우선 공천 (광역 20%, 기초 30%)을 통해 제시했다.

세부적인 권고안은 ▲광역의회 정원 20% 이상의 청년 · 여성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추천할 것, ▲전북 모든 기초의원 선거구의 '1-가'를 청년 · 여성 후보에게 우선 추천할 것, ▲신설 선거구와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을 '청년 선거구'로 지정, ▲사고지역위원회와 청년 · 여성 후보 다수 출마 지역의 협의, 조정을 담았다.

두번째 권고안 청년 · 여성 후보 발굴을 위한 추가 공모 진행은 다양한 분야의 청년 정치인 특히, 정당 바깥에 있는 청년, 여성, 혁신 활동가에게 출마할 기회를 주기 위해 권고됐다.

세부적인 권고안은 ▲청년 · 여성 후보 발굴 위한 추가 공모 실시(기간 연장), ▲추가 공모 접수한 청년 · 여성 후보 중 당적 규정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 피선거권 부여하는 방안 등이다.

세번째 권고안 더 좋은 후보 추천을 위한 검증과 평가 강화는 높아진 국민의 기대와 기준에 부응할 수 있는 후보 검증과 평가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세부 권고안으로는 ▲후보자 문제의 제보 접수와 사실 확인을 위한 '후보자 검증 제보센터' 설치와 운영 ▲다선의원 평가 기준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재규 기획단장은 '더 좋은 후보, 기분 좋은 선택'을 기획단의 기조로 밝히고, "전북도는 대선 패배로 침체에 빠진 민주당을 아래로부터 바꿀 수 있는 최적의 곳"이라며 "대선 이후 흩어진 마음들을 일으켜 세워 희망의 근거를 만들려면, 민주당이 문을 활짝 열고 변화된 모습을 '실물로' 국민들에게 보여야 한다"라고 민주당의 혁신과 문호 개방을 호소했다.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공천 원칙인 "검증은 철저하게, 혁신은 과감하게, 경선은 공정하게"를 거듭 확인하며, 기획단의 권고안을 포함해 "청년과 여성을 확대하고 정치신인, 특히 정당 바깥에서 활동한 유능하고 역량 있는 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권고안은 6일 예정된 공관위 회의에서 논의해 수용과 이후 집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호상기자

"부군수 임명권, 군 공무원에게로"

두세훈 완주군수 예비후보

완주군수 예비후보인 두세훈 변호사(더불어민주당)가 문화 · 체육 분야와 행정 · 혁신 공약을 통해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군민이 주인'이 되는 완주군을 조성하겠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월부터 '완주군 황금시대'를 위한 핵심 공약을 분야별로 발표한 두 의원은 문화 · 체육, 행정 · 혁신 공약을 밝히며, 완주군민의 선택을 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변호사는 문화 · 체육 분야 핵심 공약으로 ▲만경강 명품호텔을 포함한 관광센터 조성, ▲돔형 거점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등을, 행정 · 혁신 분야는 ▲포스트 코로나 특별대책위원회 신설, ▲부단체장 자체 승진 실시, ▲온 · 오프라인 군민신문고 운영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두 변호사는 특히, "국내외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도록 만경강 일원에 명품호텔을 포함한 관광센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완주군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내 철도여행 관광객을 공략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또, 돔형 거점 실내체육관을 건립해 실내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탁구장 등을 마련해 지역 주민의 각종 체육활동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어, 행정 · 혁신 공약을 약속한 두 변호사는 "군수로 당선되자마자 포스트 코로나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코로나 19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농민 등 분야별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민생 경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110조 4항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임명한다'는 규정에 따라, 완주군 부군수를 실질적으로 자체 승진 절차로 선발하겠다"는 공약도 밝혔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군수가 지방자치법상의 부군수 임명권한을 실질적으로 직접 행사함으로써 완주군에서 장기간 근무한 공무원에게 부군수 임명의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두 변호사는 "군민과 소통 창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온 · 오프라인 군민신문고 운영을 활성화해 직소민원을 수시로 확인하고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임실 농가 50% 5000만원 이상 소득 창출 노력"

한완수 군수 출마예정자

한완수 임실군수 출마예정자(전북도의원, 더불어민주당)는 잘사는 임실을 위해 "돈 되는 농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한 의원은 "임실 농업의 경우 군 농업 정책 부재, 농업예산 축소, 유통시스템 미비 등으로 농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농촌순환경제구축을 통해 임실 농가 50%가 5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창출하는 임실농업 55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농업순환경제 구축의 핵심과제로 ▲비닐하우스 시설단지 구축, ▲55순환농업추진단 설치,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보조금 농자재 공동구매 우선 시스템 구축, ▲농업인력지원센터 기능 강화, ▲빈집활용 외국인 노동자 숙소 지원 등을 제시했다.

/유호상 기자

민주 도당 검증위 "예비후보 검증 적정했다"

"당헌 · 당규 따라 진행"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검증위가 5일 지방선거 입지자 예비후보 검증과 관련 적정성 시비가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당헌과 당규에 따라 검증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특히,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심사를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위원장과 위원 50%이상을 외부인사로 임명해 당헌 · 당규에 따라서 예비 후보자의 자격심사 및 도덕성을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중앙당 최고위원회는 7대 범죄에 대해 예외 없는 부적격으로 분류하도록 했고,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도 각 시 · 도당의 결정에 따라 심사를 시행하도록 했다.

7대 범죄는 살인 등 강력범,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 성폭력 · 성매매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투기성 다주택자에 해당한다.

또한, 지난해 4월 7일 재보궐선거 후보검증 기준을 준용해 당에서 정한 '뇌물, 알선수재 등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나 '병역기피, 음주운전, 부동산투기 등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기준으로 정했다.

검증위는 후보자의 지지도, 복당 여부, 징계 여부 등은 검증기준에 두지 않았으며, 단지 당헌 · 당규 및 중앙당의 지침 등에 따라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후보자들이 제출한 서류 등을 기초로 해서 후보자의 자격 및 도덕적 심사를 했다고 밝혔다.

기준 이외에도 공직 후보자로서 자격 및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강화된 검증을 실시했다.

검증위는 "당헌 · 당규에 명시된 범죄경력 등에 대해 대사면한 것이 아니며 당의 약속파기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이유가 없다고 기각된 이의신청은 당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됐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이명연 도의원, 청소년 복지 증진 등 공로 인정

전북도의회 이명연 위원장(환경복지위원장 · 전주11)이 청소년 복지 및 보훈대상자 지원 정책에 대한 공을 인정받아 '전북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 및 '대한민국상이군경회전북지부'로 부터 각각 감사패를 잇달아 수상했다.

먼저, 전북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이명연 위원장이 평소 청소년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역의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점을, 대한민국상이군경회전북지부는 이명연 위원장이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보훈단체의 발전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북지부 회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상이군경회 발전에 이바지 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각각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명연 위원장은 평소 지역의 아동 ·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발언 및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최근 심리 · 정서 및 행동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의 치료 · 재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립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익산시 유치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며, 청소년 디딤센터 유치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그는 또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온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권익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해에는 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간 보훈수당이 천차만별인 점을 지적하며, 국가보훈처 등에 형평성 있는 국가보훈수당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훈수당 개선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명연 위원장은 "금번 감사패는 지역의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모든 보훈대상자분들이 그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달라는 의미로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복지 및 보훈대상자분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주천 · 삼천변에 가족 무료 수영장을"

임정엽 전주시장 출마예정자

임정엽 전주시장 출마예정자는 5일 정책발표를 통해, "도심 하천인 전주천과 삼천 상류에 가족 무료 수영 장을 만들어 어린이와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임 출마예정자는 "한벽루 앞 전주천은 1970~1980년대만 해도 시민들에겐 한여름 최고의 물놀이공간이었다"며 "전주천 · 삼천 야외수영장은 이를 현대적으로 복원해 다시 전주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도심 열섬 현상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야외 수영장에는 어린이풀장, 물썰매장, 인공폭포, 유수풀, 대형 미끄럼틀 등이 다양하게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또 아이들과 동행한 부모들을 위해 그늘막 시설, 벤치, 남녀 탈의실, 화장실 등 편의 시설도 설치하기로 했다. /김윤상 기자

인수위 균형발전위, T/F형 특별과제 '새만금' 선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준)는 지난 4일 3차 전체회의를 열고 T/F형 특별과제로 '새만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향후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정운천 부위원장과 김경안 전 선대본부 새만금특별위원장을 중심으로 T/F 형식의 '새만금 발전 기획단'을 구성해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기존에 추진 중인 새만금 사업들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충분한 지원은 물론,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새만금 특별위원회 대통령 직속 설치010운영, 새만금 특별회계 조성, 국제투자진흥지구 도입,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및 핵심 인프라 구축,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새만금을 경쟁력 있는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운천 부위원장은 "새만금 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사업을 더욱 구체화 시키는 것이 필요한 만큼 새만금을 지역균형발전특위의 특별과제로 선정했다"라며 "새만금 발전 기획단을 구성해 새만금을 동북아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